



안심할 수 없는 초등학교 '권장' 도서

특정출판사 목록으로 채워지거나 유해한 내용이 대부분

곽정란 · 어린이도서연구회 전 사무총장

초등학교 필독 도서목록 가운데 출판사·지인이 표기도 불분명하거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는 사랑타령이나 등장인물의 부도덕함·잔인함이 드러난 책도 있다. 교육부 독서 정책에 편승해 백해무익한 불량동화를 '엄선' 하는 이들이 누군지 궁금하다.

“책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고르지?”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술한 어린이책을 일일이 보고 고르기도 힘들 뿐더러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과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도서목록에 의존하고 나아가서는 '절대적인 믿음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단체나 기관·학교·출판사 그리고 대형서점에서 발표하는 여러 형태의 '권장', '필독', '추천' 도서목록이 과연 학부모가 안심하고 골라도 될 만큼 믿을 만한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출판사·저자 표기 불분명

지난해 대구지역 두개 초등학교의 권장 및 필독 도서목록을 보았다. 한 학교에서 발표한 권장 도서목록은 비교적 각 학년별·분야별(국내 창작·국의 창작·옛이야기, 시·글모음집·과학·환경·문화·인물·역사 등)로 골고루 나뉘어져 있으며, 동화 선정도 권한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또다른 학교의 경우는 문제가 많았다.

먼저, 필독 도서목록에 출판사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았다. 목록 가운데 몇 권이 우연찮게도 한 출판사의 책이라 의아했다. 그 출판사의 도서목록을 살펴보니, 권장도서 목록에 나온 책 가운데 출판사 표기가 없는 여러 권과 제목이 같았다. 결국 출판사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특정 출판사의 책을 편중되게 넣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서목록에 뽑힌 출판사의 책으로 《내 사랑 내 곁에》·《최후의 공포》·《엄마 미워, 진짜 진짜 미워》·《아빠 미워, 진짜 진짜 미워》·《안행어서 출두야》·《명석 같아라, 웃음 쏟아진다》 등이 있었는데, 한결같

이 명랑동화나 순정·유머동화였다.

다음으로 책의 내용상 문제다. 도서목록에 실린 책 가운데 《내 사랑 내 곁에 (1·2)》란 책을 중심으로 지적해 보겠다. 이 책은 '6학년 국어과목'을 위한 필독서로 돼 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코린느'라는 여주인공의 사랑을 받기 위해 '리살', '아린', '프랑소와' 등 세 남자가 펼치는 이야기다. 사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건이 우연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책을 읽어가면서 과연 이런 사랑타령의 잔인한 '로맨스 소설'이 국어과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아스럽고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또 등장인물은 한결같이 자신의 꿈을 위해 남을 속일 뿐더러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 지은이 표기도 불분명했다. 《내 사랑 내 곁에 (1·2)》는 저자가 김○○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이려니 했지만 읽어보니 아니었다. 분명히 동화의 무대와 배경이 서양이며 등장인물도 외국사람인 외국소설인데,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내 창작동화처럼 둔갑해 혼란을 줄 뿐이다. 번역동화라면 마땅히 원작자와 번역자를 밝히고 원작에 충실해야 한다.

《내 사랑 내 곁에 (1·2)》안에는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랑타령과 등장인물의 부정직성·도덕불감증·잔인성·모호함이 드러나 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이, 그것도 잔혹한 죽음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폭력적인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술한 살인사건을 체험한다. 통계에 따르면 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상매체를 통해 1만번 정도의 살인을 체험한다고 한다. 그러나 영상매체뿐 아니라 잔인한 내용을 담은 책도 위해성은 심각하다. 영상이 없어도 어린이들이 상상을 통해 술한 죽

음을 맛보기 때문이다.

우리 창작동화의 출간이 활발해진 요즘에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좋은 우리 창작동화를 짓혀두고 '국어과목'에 도움을 주는 책으로 이런 책이 선정됐는지 모르겠다. 과연 이 필독 도서목록을 만든 분이 목록작업을 할 때, 실제로 책을 한번이라도 꼼꼼히 읽어보고, 이 책이 어린이에게 주는 위해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백해무익한 불량동화 주류

이뿐만 아니다. 새학기, 새학년만 되면 여러 학교에서 관례로 실시하는 '도서전시바자회'의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 지역의 두 초등학교 '도서전시바자회'에 나온 도서목록을 살펴보았다. 한 학교에서 도서목록과 함께 각 가정으로 보낸 안내문이다. “교육부 초등교육정책이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본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어머니회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알찬 학교생활을 위해 최근 발행한 우량도서를 엄선... 도서구입가격은 20% 할인하오니 자녀들과 함께 꼭 필요한 양서를 선택하시기 바라며... 수익금은 우리 학교 발전기금으로 유익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 도서바자용 도서목록에도 출판사가 표기돼 있지 않았고, 또 지은이 없이 '출판사 편집부'라고 표기돼 있는 책이 주류를 이루며 대개가 학습관련도서이거나 명랑·괴기·유머·공포동화였다. 요즘의 '교육부 독서정책'에 편승해 백해무익한 불량동화를 누가 '우량도서'라고 '엄선'했는지 궁금하다. 몇 권의 예를 들면, 《공포터널》(편집부)·《신나는 미로여행》(편집부)·《오 마이 갓 사오정》(편집부)·《겹쟁이 슈퍼맨》(편집부)·《어린이가 꼭 읽어야 할 러브 스토리》(편집부)·《공포의 책》(편집부)·《마법의 성》(편집부)·《IQ 만화게임북 1·2》·《빠라바라바라 밤 사오정》 등이다.

권장 또는 추천 도서목록을 발표하는 기관



불량 도서목록이 더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모니터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나 단체에서는 어린 시절에 읽은 한권의 책이 한 사람의 삶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나라 어린이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한다. 특히 특정출판사의 상업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도서선정 작업을 이끌어야 한다. 학교라면 마땅히 독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사와 학부모가 '어린이책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밖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목록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도서선정기준과 선정작업에 참여한 사람을 밝혀 이 목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판단을 돕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 작업 필요

또한 시중에 발표되는 여러 권장 도서목록에 대한 모니터 작업이 꾸준히 이뤄져야겠다. 어린이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나 학부모·교사의 지속적인 모니터 작업을 통해서 불량 도서목록이 더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불량 도서판매의 온상인 위와 같은 '도서전시바자회'는 양식을 갖고 거부함으로써 불량도서가 뿌리뽑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육부 주관하에 학년별 교양 도서목록과 교과 단원별 관련 권장 도서목록을 준비하고 있다니, 이 목록이 권장도서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감을 씻어줄지 기대해 본다. ❖